



PAMELA and MATTHEW

profile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파멜라와 오하이오 출신의 매튜. 현재는 뉴욕에서 'Reed+Rader'라는 이름의 듀오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독특하고 즐거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영상과 모션 그래픽,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작업을 선보인다. www.reedandrader.com

당신들의 첫 만남이 궁금하다. 10년 전 피츠버그 아트 스쿨에서 처음 만난 우리. 당시 둘 다 파란색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최근 두 사람이 함께한 프로젝트는?** 얼마 전 런던에서 첫 번째 단독 전시회 '백악기가 돌아왔다(Cretaceous Returns)'를 열었다. 관객들이 공룡들과 함께 춤추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한 전시로, 현재 뉴욕에서도 같은 전시를 열고 있다. **공동 작업이 이뤄지는 방식은?** 파멜라는 비주얼과 관계된 것들, 스타일링과 아트 디렉션을 주도하는 반면 매튜는 주로 기술적인 작업을 맡는다. 하지만 어느 부분도 혼자 결정짓진 않는다. 모든 아이디어는 상의를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고 워드해진다. 심미안이 비슷한 덕분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파트너로서 서로의 장점을 꼽는다면?** 매튜는 전자 기기를 사랑하고 최신 기술을 빠르게 익힌다. 프로그래밍부터 편집까지 정말 능통하다. 파멜라는 프로페셔널한 보스다. 무엇 하나 훌륭하게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데드라인 안에 해내고 만다.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알고 있다. **취향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둘의 공통점은?** 할리우드와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는 점! 그날에 어울리게 드레스업하고 유령과 눈사람으로 집을 꾸미는 게 우리의 최고 즐거움이다. 귀여운 캐릭터, 컬러풀한 동물 인형들도 좋아한다. 패션과 음악 취향도 꽤나 비슷하며, 둘 다 피자홀릭이라서 거의 매일 피자를 먹는다. **둘이 지내는 공간의 특징은?**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개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꾸몄다. 현재 우리 집은 외계인과 동물(인형)들이 가득한 우주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이 보내는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피자 디너 데이트, 밤 늦게 단둘이서 하는 보드 게임도. **당신들에게 '창조력'과 '사랑'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나?** 물론이다. 다른 식으로 일하는 건 생각조차 못 하겠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창조적인 모험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진실로 놀라운 경험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꾸는 프로젝트는?** 광고, 잡지, 전시 등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사진 작업에 더욱 집중하려 한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작업을 통해 우리의 괴짜스러운 세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알렉산더 맥퀸의 옷을 입은 모델의 모션 그래픽.

동물은 가장 큰 영감 중 하나이다.



아디다스, 버버리 프로섬, 3.1 필립 림의 옷을 입은 모델의 모션 그래픽.